

3

단 원

제

세대별 전도방법(친구관계를 통해 전도하는 평신도)

7과 청소년 전도방법과 실제

8과 청년전도 방법과 실제

9과 노인전도 방법과 실제

청소년 전도방법과 실제



목 도 다함께

찬 송 518장 (구 252장, 기쁜소리 들리니)

기 도 말은 이

성경봉독 로마서 10:13~15

참고성경 마태복음 28:18~20, 누가복음 19:10

요 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
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롬 10:14)

말씀증거 사회자

1.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청소년들이 떠나가는 교회는 미래가 없는 교회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한국 교회 안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꽤 오래전부터 한국 교회 내

의 청소년 사역의 침체가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역교회들은 아무런 손을 쓰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청소년들의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 수많은 교회들이 청소년 사역에 실패하고 있으며, 심지어 청소년 사역을 포기하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도 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감리교회만이 겪고 있는 특수한 문제는 아닙니다. 교단을 막론하고 해가 지날수록 청소년부 예배에 출석하는 청소년들의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들을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청소년 전도는 더 이상 교회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사역이 아닙니다. 청소년 전도는 정말 시급합니다. 청소년을 전도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10년 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소망이 있습니까? 청소년을 전도해야 합니다.

2. 청소년들을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1) 담당사역자와 교사들의 열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사실 청소년 전도의 정답은 없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잘 안 되는 전도방법이 우리 교회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고, 우리 교회에서는 잘 안 되는 전도방법이 다른 교회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청소년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담임목사, 청소년부 담당 사역자, 청소년부 교사들에게 복음에 대한 열정과 청소년을 전도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역자와 교사들이 먼저 전도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역자와 교사들이 먼저 청소년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고등학교 앞으로 전도지를 들고 나아가야 하고, 다양한 방법과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청소년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이러한 전제가 없이 청소년들에게만 전도하라고 외친다면, 청소년부에 잠깐 전도의 불이 붙을 수는 있지만 분명히 금방 식어 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잠깐 타올랐다가 식어 버리는 전도의 불이 청소년부의 더 큰 침체를 불러 올 수 있습니다. 청소년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청소년을 전도해야 한다는 사역자와 교사들의 열정과 뜨거움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2) 친구의 관계 전도는 청소년 전도의 백미입니다.

친한 친구의 관계 전도는 청소년 전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수년간 청소년 전도의 현장을 경험하면서 아무리 획기적인 전도방법이라 할지라도 친구가 친구를 전도하는 방법보다 더 좋은 청소년 전도 방법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사역자와 교사들의 역할은 단지 전도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며, 청소년들이 직접 친구를 전도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마음의 동기를 유발시켜 주는 일입니다. 사역자와 교사들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선물을 가지고 학교 앞에 나가서 전도를 한다 해도 청소년 한 명을 교회로 인도하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실제로 2008년 7월에 사역자와 교사들이 교회 인근의 중학교 하나를 정해서 일주일간 매일 2회씩(등교시간, 하교시간) 학교 앞 전도를 나갔었습니다. 사탕, 요구르트, 비타민, 과자, 초콜릿

등을 나누어 주며 청소년 주일 예배에 초청 했는데, 그 주일 예배에 한 친구도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과 물질을 헌신하며 그렇게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믿지 않는 한 명의 청소년을 교회로 초청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뼈저리게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직접 자신의 친구를 전도하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도 청소년부에서 정기적으로 친구초청예배를 드리게 되면 수 십 명의 새로운 친구들이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친한 친구가 자신을 초청했기 때문입니다. 학교 앞에서 몇 번을 만나서 전도하고 설득해도 미동도 하지 않았던 청소년이 친구의 초청을 받아 친구초청예배에 나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친구가 친구를 전도하고, 그렇게 전도된 친구가 또 다른 친구를 전도하고, 그 친구가 또 다른 친구를 전도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사역자로서 가장 흥분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역자와 교사들은 청소년들이 친구를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를 강조하는 공동체의 분위기를 만들고 끊임없이 격려해야 합니다.

3) 전도된 청소년을 위한 신선한 사역이 있어야 합니다.

새 친구가 예배에 한 번 나온 것으로 만족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배에 새로 온 친구를 공동체에 정착시키고, 그 친구가 혼자 힘으로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짜 전도입니다. 몇 명이 전도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명이 정착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전도된 한 친구를 교회에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고 시도하는 것이 사역자와 교사들과 청소년부 학

생들의 역할입니다. 청소년들은 백인백색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새 친구들에게 접근해야 합니다.

(1) 새 친구가 그 다음 주에도 예배에 올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함이 있어야 합니다.

- 무조건 새신자반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2) 사역자, 교사들이 관계를 맺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사역이 매우 중요합니다.

- 핸드폰 문자, 네이트온, 싸이월드, 손으로 쓴 편지, 학교(학원) 앞 심방 등

(3) 기존의 청소년부 학생들이 먼저 다가가서 관계를 맺는 사역이 이상적입니다.

- 미리 청소년부 학생들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훈련된 청소년들이 움직입니다.

4) 청소년 전도의 실제 (영중등대: 영등포중앙교회 청소년부)

(1) 청소년 주일 예배 때마다 정기적으로 전도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청소년들이 부담을 가졌지만 지금은 전도를 강조하는 공동체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고, 전도 메시지의 선포를 통해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2) 다양한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성경공부, 제자훈련, 리더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말씀으로 청소년들을 훈련합니다. 제자훈련을 제대로 받은 청소년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친구를 전도 했습니다. 양육

프로그램의 단계별 과정을 거치면서 인근의 지하철역에 나가 청소년들을 전도하는 실습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3) 새 친구를 초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정기적으로 기획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 생명 FESTIVAL, 무한초대 프로젝트, 셀러브레이션 나이트, 홈커밍파티, 다모임SUNDAY 등의 이름을 정해서 분기마다 친구를 초대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2008년에는 처음으로 CGV 예배를 기획해서 영화관으로 친구를 초대했습니다. 영화관에서 함께 예배를 드린 후에 영화를 보는 행사를 진행했는데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4) 학교 앞 전도는 쉬지 않습니다. 되든 안 되는 매주 인근의 학교 앞에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학교 앞 전도는 우리 청소년부의 지속적인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역자들이 학교와 연계하여 사역하고 있습니다(선유고 기독교반 클럽활동인도, 당산중 화요일예배 인도, 관악고 수요일예배 인도, 선유고 목요일예배 인도 등).

학교 안에서 사역을 시작하기까지 어려움도 많았고, 시간도 많이 걸렸지만 학교 안에서 예배를 드리며 청소년들을 초대할 수 있는 것은 이상적인 청소년 전도 방법입니다. 교회에서는 연계된 중고등학교 사역을 위해서 매달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청소년을 전도하는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4년 전(2004년)의 영등포중앙교회 청소년부는 한 마디로 말해서 ‘소망이 없는 청소년부’였습니다. 예배 출석 인원은

10~15명, 교사는 한 명도 없었고, 담당 전도사도 사역을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에 참석해야 하는 청소년들만 모여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고, 예배가 끝나면 어떤 교제나 모임도 없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정말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청소년부가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역자, 교사, 학생들이 하나 되어서 전도할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일하셨고 수많은 청소년들을 보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미래의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청소년 전도에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헌신해야 합니다. 청소년은 우리 교회의 소망이며, 한국 교회의 소망입니다. 청소년을 전도하는 교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생각을 위한 질문

- 1) 당신의 친구가 어떻게 할 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 2) 당신의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찬 송 515장 (구 256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토의및광고 사회자

주기도문 다함께

청년전도 방법과 실제



목 도 다함께

찬 송 312장 (구 341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기 도 말은 이

성경봉독 고린도전서 9:19~23

참고성경 디모데전서 4:7~16

요 절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고전 9:22)

말씀증거 사회자

1.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청년들을 전도한다? 청년들만큼 전도가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쉬운 대상은 없습니다. 먼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일

반적으로 현재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조차 잘 정착시키지 못하고 떠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년들과 달리 유동성이 심할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에도 실패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청년 전도가 쉽다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여전히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새신자의 대부분이 청년으로 대표되는 청장년, 중고등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노방전도를 할 때에도 가장 민감하게 복음에 수용적인 대상이 청년들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청년전도는 쉽습니다. 하지만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것일까요?

2. 청년 전도의 핵심

개인적으로도 청년들이 훨씬 복음에 수용적이고 전도가 쉽다는 것은 주로 대학교 혹은 중고등학교에서 채플을 인도하면서 경험합니다. 사실 대학생들과 청소년들이 모인 학교 채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의 내용이 아니라 설교를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곧 문화가 중요합니다. 청년들과 대화하기 위하여 그들이 좋아하는 코드인 랩 혹은 록음악을 사용하기도 하고, 영화를 사용한 영화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거의 대부분이 분명하게 반응할 뿐 아니라 복음에 관심을 갖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합니다. 보통 참석자의 5%에서 10%정도는 예수를 영접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처럼 그들이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다는 말은 짧은 시간이지만 그들이 설득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코드를 이해한 설교였다는 뜻입니다. 결국 그것이 예배이든 전도이든 할 것 없이 청년들

을 만나고 청년들을 설득하려 한다면 청년들의 코드를 읽고 그 코드를 좇아서 접근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을 만나고 청년들을 전도하려 한다면 무엇을 알아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Dying for Change”의 저자 리스 앤더슨(Leith Anderson)은 과거 미국의 청년들이었던 베이비 붐 세대에 대한 특징을 다음과 같이 얘기하였습니다. 기존의 것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의 부재, 논리적인 이성적인 태도, 이기적인 삶의 자세, 더 재미있는 것에 대한 추구,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 등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미국의 경우였지만 리스 앤더슨이 이같이 정리한 것은 많은 미래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과 대개 유사한 것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같은 의견들을 종합하면서 청년전도방법의 실재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끈끈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은 초등학교를 들어가는 순간부터 치열한 경쟁문화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폐쇄적인 성격과 함께 매우 이기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동시에 상대적으로 외로움과 고독을 체험하는 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친구들과의 관계가 형성되면 집착과 같은 태도를 보입니다. 관계에 약하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관계성에 약하다는 것을 이단들은 교묘하게 사용합니다. 한때 JMS와 같은 이단이 대학사회에서 먹혀들어가는 이유도 알고 보면 신입생일 때 무한히 잘해주는 선배의 사랑과 배려를 거절할 수가 없어서 가입하면서 시작됩니다. 관계 맺기와 관계전도는 청년전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연히 교회는 이같은 청년들이 편하게 접근하고 놀 수

있는 공간과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논리적인 설득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들은 대체적으로 지금의 장년세대의 학력과는 달리 대부분 대학을 다니는 등 많이 배운 세대이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헌금을 강조하거나 봉사를 강요할 때 거절하기도 하며, 교회의 비민주적인 목회형태나 지나친 목회자 중심의 스타일에 대하여 자기의 소리들을 내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에서 이루어지는 지나친 형태의 전도방법에 대하여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세대가 바로 이 청년들이고, 일방적인 전도방식에 대하여 단호한 거절을 표현하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을 위한 전도에는 어떤 논리적인 것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꿈이있는교회’의 노방전도의 경우 “종교성향 설문조사 방법”을 즐겨 사용하는데, 먼저 종교성향을 묻는 질문을 던지므로 상대방을 파악하고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에 호감 가는 대상을 찾아내는 작업을 먼저 합니다. 그 후에 복음에 우호적이거나 필요한 대상에 집중해서 복음제시를 시작하는데 단순히 전도지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30분 전후의 시간이 필요한 논리적인 복음제시 방법인 “다리전도법”등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것이 효과적인 것은 그들은 논리적 대화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문화적인 타월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미 문화는 청년들의 일상을 지배하는 코드로 변한지 오래되었습니다. 문화를 즐기고 어떤 의미에서 수준급이 되어있는 문화를 누리는 세대에게 이제 교회는 타월한 문화행위를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대학로에서 찬양을 통해 전도하는 교회가 있습니

다. 하지만 이미 공식적인 토요일, 주일의 모임에 사람들이 거의 참여하지 않은지는 오래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곡이나 연주 등 수준이 청년들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꿈이있는교회가 여름마다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청주전도여행을 갔을 때의 일입니다. “청주 COMFORT”로 이름했던 전도여행의 핵심 코드는 문화였습니다. 청주 문화의 거리인 철당간 앞 광장에서 벌어진 난타류의 “우당탕탕 공연”, 기성 연극인들이 준비한 거리 마임 “Apple Tree”와 “King of Heart”, 유제하 가요제 출신 가수의 섹스폰 연주와 거리 공연, 청주 현지의 알려진 힙합팀의 공연과 함께 딱딱한 전도상담 대신 시(詩)를 써주는 “거리의 위로자” 프로그램까지 문화로 무장하여 전도를 시도하였습니다. 불과 하루 4시간 정도의 짧은 시간을 가진 이들 동안의 전도였지만 실제 전도에 참여한 50여명이 만나고 결신한 인원은 총 만난 사람들 681명중에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60명이었고, 관심을 보인 사람들이 무려 232명에 이르렀습니다. 문화적인 탁월함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막무가내로 접근하는 방법으로 청년들을 만나는 것은 요행에 가까울 만큼 힘든 시대가 되었기에 그렇습니다.

넷째, 접근의 용이함이 있어야 합니다.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의 핵심은 그들과 만날 수 있게 같은 문화코드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그들이 사용하는 문화양식을 가져야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에도 바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성장한 교회들 상당수가 학교 건물이나 예배당 같지 않은 빌딩 혹은 문화시설들을 가지

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친근함과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청년들이 다양한 선택의 세상(multiple-choice world)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양한 텔레비전 채널, 다양한 잡지, 영화, 음악 등 다양한 문화행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양성 시대에 선택의 기준은 어느 것이 더 재미있고 유익한지 물어보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3. 지상명령을 따르는 방법

언제부터인가 교회 안에 청년들이 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청년들을 전도하는 것은 힘든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미 설명한대로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접근하거나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문화양식을 갖고 그들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정말 청년들에게는 주님이 보여주신 성육신의 방법, 곧 그들의 문화의 옷을 입고 그들과 만날 준비를 하고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르는 청년 전도방법입니다.

생각을 위한 질문

- 1) 우리 교회의 청년들을 배려한 문화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이나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2) 위에서 제시한 것을 읽으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적용하고 시도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서로 나누며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찬 송 574장 (구 303장, 가슴마다 파도친다)

토의및광고 사회자

주기도문 다함께

노인전도 방법과 실제



목 도 다함께

찬 송 450장 (구 376장, 내 평생 소원 이것 뿐)

기 도 말은 이

성경봉독 디모데전서 5:1~4

참고성경 이사야 46:4

요 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딤후 4:4)

말씀증거 사회자

선진사회가 되면서 복지에 우선을 두게 되었고 모든 것은 편리해지고 여가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건강하고 장수하므로 사회가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에 해당됩니다. 한국개발원 보고서(KDI)에 의하면 2020년에 가서는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3.2%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만일 60세 이상 노인인구로 칠 경우 2020년에는 20.4%로 경제활동인구 4~5명이 노인 1인을 부양하게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충주제일감리교회는 100주년을 맞아 “100년의 은혜를 이웃과 함께”란 대원칙을 정하고 섬김(Service), 나눔(Share), 돌봄(Care), 치유(Heal)의 의미를 살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복지목회를 생각하게 된 것은 고령화 사회로 돌입하게 되면서 본인은 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도 국가나 사회는 퇴출시키는 시대 상황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버림받았다는 상실감과 소외감과 무료감과 고독감에 빠져 있습니다. 사회로부터 버림받았고, 자식으로부터 버림받았고, 종교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구 고령화시대는 앞으로 고령시대가 될 것이며 계속하여 초고령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충주제일감리교회가 사명의식을 가지고 2001년 9월에 충주제일노인대학을 설립하여 복지 목회를 이슈로 삼고 계속적으로 선교하고 있습니다.

1. 노인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년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시 90:9~10)

노인은 보수적이며, 건강이나 경제적인 문제에 불만을 느끼고, 필요없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대한 추억(과거사를 자주 말한다)에 매달리며, 흥미의 폭이 좁아지며, 소극적이고 위

축됩니다. 그리고 적응력이 감퇴 되며, 최근에 있었던 일을 쉽게 잊고, 자기중심적이며 남에 대한 관심이나 주의가 약화됩니다. 뿐만 아니라 말수가 많아지며, 자기 생활에 방해받는 것을 싫어하고, 대인관계에서 조심스럽고 시기심이 많습니다. 자기의 기분이나 감정을 고집하며, 정서적 조절력이 약하고, 갈등이 많습니다.

2. 노인대학 운영에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1) 노인대학의 교훈입니다.

첫째, 자기개발입니다. 자기개발은 노인대학이 추구해야 할 가장 구체적인 가치를 나타냅니다.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자신을 지혜롭게 갈고 닦으며 나아가서 책임 있는 지성인으로서 사회에 봉사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습니다. 둘째, 경천애인입니다. 경천애인은 사랑입니다. 인간만이 유일하게 지니고 있는 지고지순의 아름다운 덕성, 그것은 사랑의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외면하지 않으며, 이웃을 사랑하는 경천애인을 몸소 실천하여 후대에 본이 되며 지도하는 것을 교훈으로 삼습니다. 셋째, 봉사생활입니다. 봉사생활은 인간으로 반드시 가져야 할 인성입니다.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체험하게 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게 하며 노인들이 가진 경륜과 지혜와 지식을 사회봉사를 위해 쓰실 수 있도록 합니다.

2) 노인대학의 구호입니다.

구호를 함께 외치므로 일체감 형성과 외치면서 마음속에 동기가 부여됩니다. 배울 수 있는 것으로 즐거움과 보람을 나눌 수 있는 곳으로 “모이자”(자기개발을 위해), “배우자”(경천애인의 삶을 이루기 위해), “본이 되자”(봉사의 생활을 통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3) 노인대학의 운영방침입니다.

학생모집은 매년 2월중에 실시하며, 모집기간 이외에도 수시로 모집합니다. 입학 수속 및 등록필(각 학과 소속)하고 학생증을 가진 어르신은 무료 급식, 무료 진료, 무료 이·미용, 무료수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지역 주민 중 60세 이상 노인과 타 지역에 계시는 분이라도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수시로 입학할 수 있습니다. 노인대학의 정원은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모든 활동은 자치회에서 자율적으로 활동하도록 합니다. 3년 출석한 후에 노인대학 졸업식 때는 학사 가운과 학사모를 쓰고 졸업하고 매년 수료식을 합니다. 졸업생에게는 평생 수강증을 드리며 대학원생으로 동창회 활동을 하게 합니다. 충주제일노인대학은 모든 운영을 무료로 합니다.

4) 노인대학의 운영일정입니다.

충주제일노인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대학 수업은 매주 목요일 오전10시 30분~오후3시까지입니다. 프로그램 진행 기간은 1년 단위로 매년 3월 첫 주 목요일부터 시작하여 6월까지입니다. 7월과 8월은 여름방학이며, 9월 첫 주 목요일부터 시작

하여 12월 둘째 주 목요일까지, 12월 하순부터 1,2월까지 겨울 방학에 들어갑니다. 여름과 겨울방학 때에는 2주에 한 번씩 경로당을 찾아가서 돌보며 간식 또는 소식을 나눕니다.

5) 노인대학의 운영효과입니다.

새로운 지혜와 지식을 통해 노인들의 소외감과 무료감을 해소시켜 드려 인생을 즐겁게 사시도록 합니다. 무료 급식, 무료 진료, 무료 이·미용을 통해 노인들의 건강이 증진 되도록 합니다. 지역사회 노인정마다 노인들의 놀이 문화가 많이 개선되도록 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노인공정에 큰 이바지가 되도록 합니다. 사회봉사의 삶을 통해 여생을 즐겁게 보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교회와 지역사회 사이 일치감(네트워크)이 조성되게 합니다. 자원봉사를 통해 자녀들의 어르신 공정에 크게 기여하게 합니다. 11개학과(합창, 보건, 서예, 성경, 공예, 영어, 음악, 일어, 중국어, 컴퓨터, 한글)를 운영함으로 자기개발을 적극 돕고 있습니다. 1년에 2회 이상 봄에는 봄소풍, 가을에는 가을축제를 열어 심신을 유쾌하고 건강하게 합니다. 교회의 이미지 개선으로 전도의 직접, 간접의 효과가 있습니다.

충주제일감리교회는 이미 준비된 교회의 시설(수용)과 인력(자원), 물질(무료봉사)로 가정과 사회에서 소외된 노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인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문제는 갈수록 사회문제로 심화되는 현상을 보여 주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노인복지에 대한 뚜렷한 정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충주제일감리교회가 사명의식을 가지고 주

님의 사랑으로 복지 목회를 위해 계속적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충주제일노인대학은 이웃을 섬기고(Service), 나누며(Share), 돌보고(Care), 치유하는(Heal)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충주제일교회 교인들은 이 노인대학을 통하여 노인들이 여생을 가정과 지역 사회에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보람되게 사실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어떠하더라도 그 지역사회의 필요와 문제를 찾아 해결해 간다면, 교회가 사회에서 주민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음으로서 교회 성장이 이룩될 것을 확신합니다.

생각을 위한 질문

- 1) 시대적으로 노인대학은 왜 필요한가요?
- 2) 교회에서 노인대학은 왜 필요한가요?

찬 송 452장 (구 505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토의및광고 사회자

주기도문 다함께

4

단 원

제

유형별 전도방법 (지혜로운 방법으로 복음전하는 평신도)

10과 지역사회봉사를 통한 전도

11과 스포츠 활동을 통한 전도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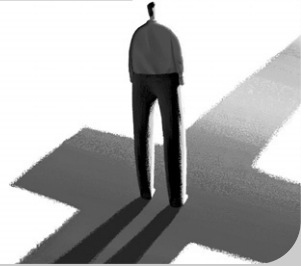
12과 문화선교와 지역사회 전도전략

10

M·O·N·T·H

유형별 전도방법 (지혜로운 방법으로 복음전하는 평신도)

지역사회봉사를 통한 전도



목 도 다함께

찬 송 582장 (구 261장, 어둔 밤 마음에 잠겨)

기 도 말은 이

성경봉독 마태복음 5:13~16

참고성경 야고보서 2:14~17

요 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
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6)

말씀증거 사회자

1998년 10월호에 [디사이플십] 저널은 초기 기독교인들의 영향력을 소개를 하였습니다. A.D 90년경 로마 제국 내의 기독교인의 수는 0.0034%에 불과한 7000명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동성애, 주신제, 유아살해 등을 하면서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이방문화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기 그리스도인

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였습니다. 그 후 2세기 후에는 기독교인수가 1.9%로 늘어났고, 4세기 초에는 인구의 10%가 되었으며, 4세기 후반에는 인구의 56%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기독교의 영향력은 당대의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로마 제국을 변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어느 날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는 십자가를 통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다워져야 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신 교회”(행 20:28), “하나님의 살아계신 집”(딤후 3:15)이라고 교회의 위상을 말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존재해야 하며, 동시에 세상을 위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하여 마태복음 5장에 교회는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존 웨슬리는 “교회는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종교다”라고 하였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더불어 존재하여야 진정한 교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은둔의 종교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동떨어져서 존재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소금이라는 것은 무엇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옛날에는 소금을 쉽게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금이 귀하기에 헬라 사람들은 소금을 신과 같이 여겼습니다. 소금이 쓰여 지는 여러 용도가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러 용도로 쓰여 지기 위해서는 소금 자신이 철저히 녹아져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눅 10장)를 통하여서 소외된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라’고 율법사에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행함은 소금처럼 녹아지는 역할을 합니다. 초기 한국기독교는

사회적 소외 계층과 지역 사회를 위한 섬김의 사역들이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주님은 우리들에게 ‘자신을 빛’ 이라고 하셨습니다(요 8:12). 주님은 우리들에게 ‘빛이 되라’ 고 하십니다. 빛은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야 합니다. 빛이 자신을 위하여 등경아래 있을 이유가 없고, 등경위에서 비추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은둔의 종교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만 사명을 다함으로 교회의 역할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밖으로 퍼져나가도록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기독교의 사역들은 주님의 명령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명분삼아서 마태복음의 주님명령을 순종하여 왔습니다(마 6:3~4). 그것은 ‘오른 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라는 말씀처럼 은밀하게 행할 것을 요구하심으로 은밀하게 섬김 사역이나 이웃을 봉사하는 사역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물론 대외적으로 나팔을 불면서 봉사를 하여야 할 필요는 없지만,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영향력 있는 영역으로 세상의 사람들을 이끌어 갈 필요가 있기에 드러내지는 영향력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따라서 이제 소금처럼 녹아져서 맛을 내고 빛을 비추는 역할을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1. 복음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봉사는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 여러 곳의 단체와 개인들이 봉사의 손길들을 참으로 많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다 내어

놓는 십자가를 바탕으로 섬김과 봉사를 하여야 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에서 잘 표현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려 하심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철저히 타자를 위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려 놓으셨습니다. 그 사건이 진정한 기독교의 이웃봉사와 섬김의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초대 선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복음이 합당한 생활을 사회 곳곳에 접목을 시켰습니다. 이런 복음을 바탕으로 세워지지 않는 봉사는 지극히 인간적이에요, 세상적인 모양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인간 중심형 봉사로 전락될 가능성이 참으로 많습니다. 복음이 바탕이 되지 않고는 기독교의 섬기고 봉사하는 사역들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팽과리가 되고 맙니다.

2. 행함으로서의 사회봉사입니다.

야고보서 저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약 2:14~17)라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기를 권고합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복음주의 신학의 전통에 강한 영향을 받아 선교의 핵심적인 요소는 전도로 보았고 봉사는 부수적인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 내지 구제나 자선의 차원에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사회를 섬기고 보듬는 일은 부수적인 사역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건강히 자란 증거가 지역사회 봉사로 드러남을 인식하여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교회

마다 좁은 틀에서 벗어나서 넓은 시야를 갖고 교회 밖의 사회에 영향을 끼쳐야 할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구체적 행함의 원칙에는 지금까지의 교회 안에서의 섬김을 ‘구제’라는 표현으로 참 많이 사용하여 왔습니다. 물론 성서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행 6:1), 구제라는 표현에는 사회적인 통념으로 현실의 상황에서는 시혜적인 인상이 강하게 만들어져서 거부감이 있음을 알기에 ‘구제’ 보다는 ‘공휼’이라는 좋은 표현으로 정착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체적인 복음의 행함을 ‘공휼’이라는 자리에서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공휼’이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공휼이란 영어로 “Compassion”인데 본래 라틴어 ‘파티’(pati)와 ‘쿰’(cum)에서 파생된 말로서 이 두 단어를 합치면 ‘함께 고통 받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공휼’은 우리를 상처가 있는 곳, 고통이 있는 장소, 깨어진 아픔과 두려움, 혼돈과 고뇌를 함께 나누는 장소로 가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요청이며 우리들의 봉사와 섬김의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사회봉사 프로그램」의 저자 김성철 교수는 복음 전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숙자쉼터, 직업알선, 어린이집 운영, 야간학교 운영, 장애인그룹 홈 운영, 사회복지시설 방문하기, 빈곤여성 한글교실, 장학사업, 독거노인 돌보기, 무의탁노인 가정방문, 불우청소년 결연, 노인정 방문, 노인 목욕봉사, 장애인 외출보조, 가출청소년 상담, 실직자 자매결연, 소년소녀가장 돕기, 실직자 무료급식 등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으로 섬길 때에 교회가 바로 세워지며 건강한 성도로서의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로서의 존재로 끝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봉사라는 영역을 통하여 세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세상에 보여 지는 유일한 증거임을 기억해야 하며, 주님께서 사람들 앞에 모양을 보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을 요청하심을 인식해야 할 때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보며,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평신도들의 자리입니다.

생각을 위한 질문

- 1) 지금까지 기독교의 역할로 세상이 도움과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지만 현실에서 기독교를 폄하하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생각해 봅시다.
- 2) 우리의 주변에서 이웃사랑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전도를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찬 송 503장 (구 373장, 세상 모두 사랑 없어)

토의및광고 사회자

주기도문 다함께

11

M·O·N·T·H

유형별 전도방법 (지혜로운 방법으로 복음전하는 평신도)

스포츠 활동을 통한 전도방법



목 도 다함께

찬 송 505장 (구 268장, 온 세상 위하여)

기 도 말은 이

성경봉독 마가복음 1:35~39

참고성경 마태복음 28:16~20, 사도행전 1:8

요 절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막 1:38)

말씀증거 사회자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할 때는 스포츠를 통한 전도활동이 왕성했습니다. 과거에 교회 마당에서 동네 청년들과 배구를 하였고, 청소년들은 소나무 밑에서 탁구를 하였던 것은 매우 흔한 일이었습니다. 어린이들도 밭에서 야구나 축구 등을 하였고, 예배당 마루에서는 술래잡기, 공기놀이 등 레크리에이션을 통하여 동네

젊은이들이 90%이상 교회에 다녔었습니다. 감리사배 교회대항 체육대회도 해마다 크게 열렸고 그때 젊은 세대들은 도시로 이사하고 이제 장년이 되었으며, 한국교회 성장의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크게 성장하면서 스포츠 전도활동이 약화되어져갔습니다. 세상이 교회보다 레저문화가 앞장서 갈 뿐만 아니라 교회는 외부 전도보다는 성가대 조직을 강화하는 등 교회 내부 행사에 치중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지난 2000년 스포츠를 통해 3개월 만에 어린이 100명을 전도할 당시만 해도 교회들이 지역 주민을 향하여 스포츠 전도활동을 펼치는 것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전도활동 침체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스포츠 전도활동의 약화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스포츠 전도활동의 강화를 통하여 개 교회와 한국교회의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 남성을 전도하기에 좋은 스포츠 활동

1) 축구전도

축구는 유치부 어린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성을 전도하기에 가장 좋은 스포츠입니다. 지난 2000년 한일 월드컵이 우리나라에서 열렸고, 송종국과 이영표 등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기도하면서 교회는 축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2000년부터 축구전도 효과를 경험하고, 대림교회에서 스포츠선교연구소를 설립하여 다양한 스포츠전도 종목을 통한 전도연구를 시작해 왔습니다. 특히 축구전도는 개

인전도 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축구를 통하여 중학생 20명을 한 번에 전도한 경험도 있습니다.

축구전도 활성화를 위하여 감리교스포츠선교연합회(회장 최이우 목사)는 청장년선교회전국연합회와 2004년 제1회 감리교 어린이 전국 축구대회를 개최하였으며, 210팀 3000여 명이 전도되었습니다. 제2회 어린이 축구대회는 감리회본부 교육국, 교회학교전국연합회도 함께 하였고 850팀이 참가하여 1만 여명이 전도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008년에는 청소년, 청장년 전국대회도 개최하였으며, 서울연회 은강교회는 135명의 청소년들이 전도되어 전도상을 받았고, 청장년축구대회를 통해 장년들도 전도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축구전도는 남성들의 관심과 흥미를 쉽게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남성 전도의 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2) 농구전도

직장인들에게 최고의 농구대회는 어느 대회인가라고 묻는다면 대부분 서울YMCA 직장인 농구대회를 꼽습니다. YMCA대회는 그만큼 오래되었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1989년 21개 팀의 참가로 시작된 YMCA배 직장인 농구대회는 직장인 및 동호인들의 열성적인 참여와 수준향상을 통해 현재 동호인 최고의 대회로 자리잡았습니다. 한편 길거리농구는 미국의 흑인 청소년들이 후미진 골목과 주차장, 마을 공터에서 볼 하나에 가난과 고독을 실어 날려 보냈던데서 3on3농구의 유래는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93년 나이키 길거리농구대회를 시작으로 국내에 뿌리를 내린 3대3농구는 94년도의 르까프 길거리

농구대회, 98년도 아디다스 길거리농구대회가 출범하면서 그야말로 매년 여름에 치열한 승부가 벌어집니다. 이처럼 축구 못지 않게 농구하는 젊은이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구에 관심을 갖는 청소년 및 직장인들이 많다는 것은 농구경기를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길거리농구는 비교적 좁은 공간에서도 가능함으로 언제, 어디서나 가볍게 농구경기를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청소년을 비롯한 청년들이 모이는 곳이면 간단한 시설로 얼마든지 운동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장점을 활용하여 대림교회는 1년에 두 번 농구대회를 열어 많은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배드민턴, 야구, 배구, 탁구, 족구 등도 축구나 농구처럼 장점이 있음으로 전도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포츠를 통하여 남성을 전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스포츠에 재능이 있는 성도들을 정책적으로 육성하여 전도자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여성을 전도하기에 좋은 스포츠

여성은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스포츠가 맞지 않다는 선입견을 가질 수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현대인의 건강문제는 적절한 운동으로 해결 할 수 있다는 상식을 가지고 있음으로 운동에 매우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건강을 위한 운동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전도에 목표를 두면 효과적인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첫째, 여자어린이들에게 적합한 운동은 줄넘기, 훌라후프, 덴

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놀이터에서 함께 즐겁게
김으로 친해진 후 전도하며, 이웃교회와 친선경기로 전도의 폭
을 넓히면 좋습니다.

둘째, 청소년들에게는 대중가요의 가수가 방송에서 출연하여
추는 방송 댄스가 좋습니다. 실제로 문화센터에서 방송 댄스, 재
즈 댄스 등으로 강좌를 개설하는 곳이 매우 많습니다. 이것은 한
류열풍의 또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실제 청소년들이 매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여자청장년들의 스포츠 전도 방법은 에어로빅이 좋습니
다. 이 연령층의 여성들은 육체적으로 과격한 운동보다는 건강
관리와 육체미를 가꾸는데 관심이 많으므로 미용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운동이면 많은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넷째, 노인은 건강체조가 좋습니다. 이 경우에 체조만 하기보
다는 노인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부담 없는 프로그램을 추가
하면 좋습니다.

3. 스포츠 전도의 장점

스포츠를 통해 전도하면 쉽고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스포츠는 짧은 시간에 사람과 사람을 친하게 해
줍니다. 친해지면 전도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둘째, 스포츠는
공동체를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관리가 잘 이루어집니
다. 셋째, 스포츠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쁨이 있기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넷째, 스포츠전도는 예수님
처럼 삶의 현장에서 전도하기에 전도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스

포츠를 통한 전도효과는 오랜 역사 속에서 증명이 되어 왔습니다. 보다 지혜롭게 성별, 연령별로 적합한 스포츠를 선택하고 교회에 스포츠 전문지도자를 세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자료 : 감리교스포츠선교연합회 Sim.or.kr).

생각을 위한 질문

- 1) 우리 교회는 어떤 스포츠전도를 하고 있나요?
- 2) 나는 어떤 스포츠로 이웃을 전도하면 잘 할 수 있을까요?

.....
찬 송 496장 (구 260장, 새벽부터 우리)

.....
토의및광고 사회자

.....
주기도문 다함께

12

M·O·N·T·H

유형별 전도방법 (지혜로운 방법으로 복음전하는 평신도)

문화선교와 지역사회 전도전략



목 도 다함께

찬 송 507장 (구 273장, 저 북방 얼음산과)

기 도 말은 이

성경봉독 고린도전서 9:19~23

참고성경 사도행전 16:1~5

요 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고전 9:23)

말씀증거 사회자

2006년 5월에 통계청이 발표한 ‘2005 인구주택총조사’ 집계 결과에서 우리나라의 개신교인이 860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눈여겨 볼 것은 지난 1995년보다 기독교 인구가 약 14만 명(-1.6%)이나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인들을 몇 가지로 지적해 보면 첫째, 새신자로 등록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존

신자들이 수평이동(horizontal mobility)해 온 사람들입니다. 둘째, 어느 계층을 막론하고 새신자 전도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셋째, 주중에 실시하는 속회를 비롯한 성서연구, 각종 예배와 모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교회의 내부적 갈등과 교회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불신의 확산, 현대사회의 선교 여건의 변화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시대, 종교다원주의 시대라는 가치는 기독교 진리를 위협하는 최대의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일하는 사회와 여가문화의 발달, 첨단과학기술의 발달은 기독교신앙을 지키고 전파하는데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대변화에 따른 새로운 전도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문화선교를 통한 전략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1. 교회의 전도 전략 부재에 대한 반성

지금 불신자들은 한국교회의 전통적인 전도에 대하여 노골적으로 거부합니다. 축호전도나 거리에서 전도지와 전도 용품을 나누어주는 전도, 공공장소나 전철 안에서 선포하는 전도행위에 대하여 심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방적인 선포에 초점을 둔 전도방법은 불신자들이 복음에 대하여 마음을 닫는 결과를 초래하여 오히려 전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교회성장학자인 에디 깁스(Eddie Gibbs)는 “대립적인 전략을 선택한 사람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리고 분명하게,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대립적 접근법의 약점은 적절하지 못한

타이밍과 강압적인 태도가 문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제람 바즈는 전도함에 있어 성경을 아는 사람들과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구별도 하지 않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와 성경에 대한 사전 지식이 충분한 것처럼 접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의 문화, 가치, 성향을 배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전도행위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전도는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행위요, 공감과 신뢰를 주는 삶으로 가능합니다.

2. 시대의 변화에 따른 문화선교

한국교회는 전도 열정은 높지만 전도열매는 적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전도를 두렵고 부담스럽게 여기며, 전도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대교회들이 당면하고 있는 전도의 위기는 다름 아니라 전도방법의 위기입니다. 현대인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달하려면 다양한 문화 콘텐츠(Contents)를 전도의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첫째,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문화선교 전략입니다. 현대인들은 문화를 매개로한 인간관계를 형성합니다. 문화선교는 전도의 접촉점(contact point)으로 가장 적절합니다. 문화선교가 전도의 접촉점이 된다는 것은 관심과 만남과 공감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접촉점은 함께 하는 교제(companionship)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셨는데, “내가 세상 끝 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걸프전이 진행되는 동안 노먼 슈워츠르코프(H. Norman Schwarzkopf) 대장은 언론과 많은

시간을 보냈고 부대원들과도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문화선교는 불신자가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교인들과 교제하며, 교회를 이해하는 사귀의 전도전략입니다. 결국 불신자들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하며 교제했느냐가 선포와 설득 그리고 초청의 단계에까지 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이 한국교회가 현대인들의 마음을 열도록 하는 새로운 전도전략입니다.

둘째, 팀 전도전략으로서의 문화선교입니다. 문화선교는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화선교에 참여하는 초신자일 경우 교인들과 교제의 기회이며,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문화선교는 개인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봉사를 위한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존 성도들은 교회가 문화선교를 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모습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의 보람과 긍지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문화선교는 팀 전도전략으로 볼 때 불신자들에게는 교회에 대한 호감을 주고, 초신자들에게는 교제와 교회의 일에 쉽게 참여하며, 기존 신자들에게는 신앙생활이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셋째, 교회의 사회적 이미지(Image) 변화를 위한 문화선교입니다. 한국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교회의 이미지가 사회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교회는 사회적 관계와 선교방법에 대한 차원 높은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교회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교회 전체 이미지를 새롭게 회복하는 문제입니다. 문화선교는 한국교회의 이미지를 위한 불신자들과 반기독교 세

력을 향한 전략적 선교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장성배 교수는 “선교를 위한 지역교회의 포지셔닝 & 브랜딩 전략 연구”에서 ‘마케팅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 포지셔닝과 브랜딩의 관점에서 교회를 지역사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지역교회가 효과적인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 사람들의 마음속에 포지셔닝하고 브랜드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를 선교에 적용해서 교회의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것이 문화선교의 중요한 전략이 됩니다.

3. 문래동교회의 문화선교 사례들

문래동교회의 문화선교는 지난 8년 동안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진행해 왔습니다. 첫째는 매년 5월에 어린이, 노인, 청소년, 지역주민 등 계층별로 열리는 지역사회 문화축제인 “Peace 21 Convention”입니다. 지역사회 공원을 비롯한 공공장소에서 열리며, 다양한 공연예술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둘째는 매주일 오후에 문래공원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작은 음악회”입니다. 매년 4월~11월초까지 7개월, 주일 오후 4시~6시까지 문래공원에서 아리엘(Ariel) 현악단이 연주를 합니다. 동시에 커피와 음료를 나누며, 어린이들에게 솜사탕, 막대풍선 등을 나누어주며 즐겁고 평화로운 시간을 제공합니다. 셋째는 주민들이 찾아오게 하는 문화선교로서 “어린이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 장서는 약 8천 권(유아 60%, 어린이 30%, 성인 10%)이며, 등록회원은 현재 600가정

입니다. 어린이도서관은 다양한 문화 활동을 제공하며, 자원봉사인증센터로 등록된 공공기관입니다.

문화선교의 특징은 교회의 개방성(openness)과 포용성(catholicity) 그리고 적극성(positiveness)입니다. 문화선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도를 위한 전략이며, 21세기 정보화시대의 새로운 전도 패러다임입니다. 문화선교는 불신자들에게 일방적인 복음 선포로 부담을 주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문화를 통해 서로에게 유익한 시간과 관계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플로이드 맥클랑(Floyd McClung)은 전도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전도는 우리의 전 삶을 포함하는 것이며 우리가 남들 앞에서 어떻게 살기로 걱정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전도는 우리의 인격 그 자체이며, 우리의 삶과 매일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우리가 참으로 믿고 있는 바를 증거 하는 것이다.” 복음의 실천이 없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거나 감동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전도자가 기억해야 할 대명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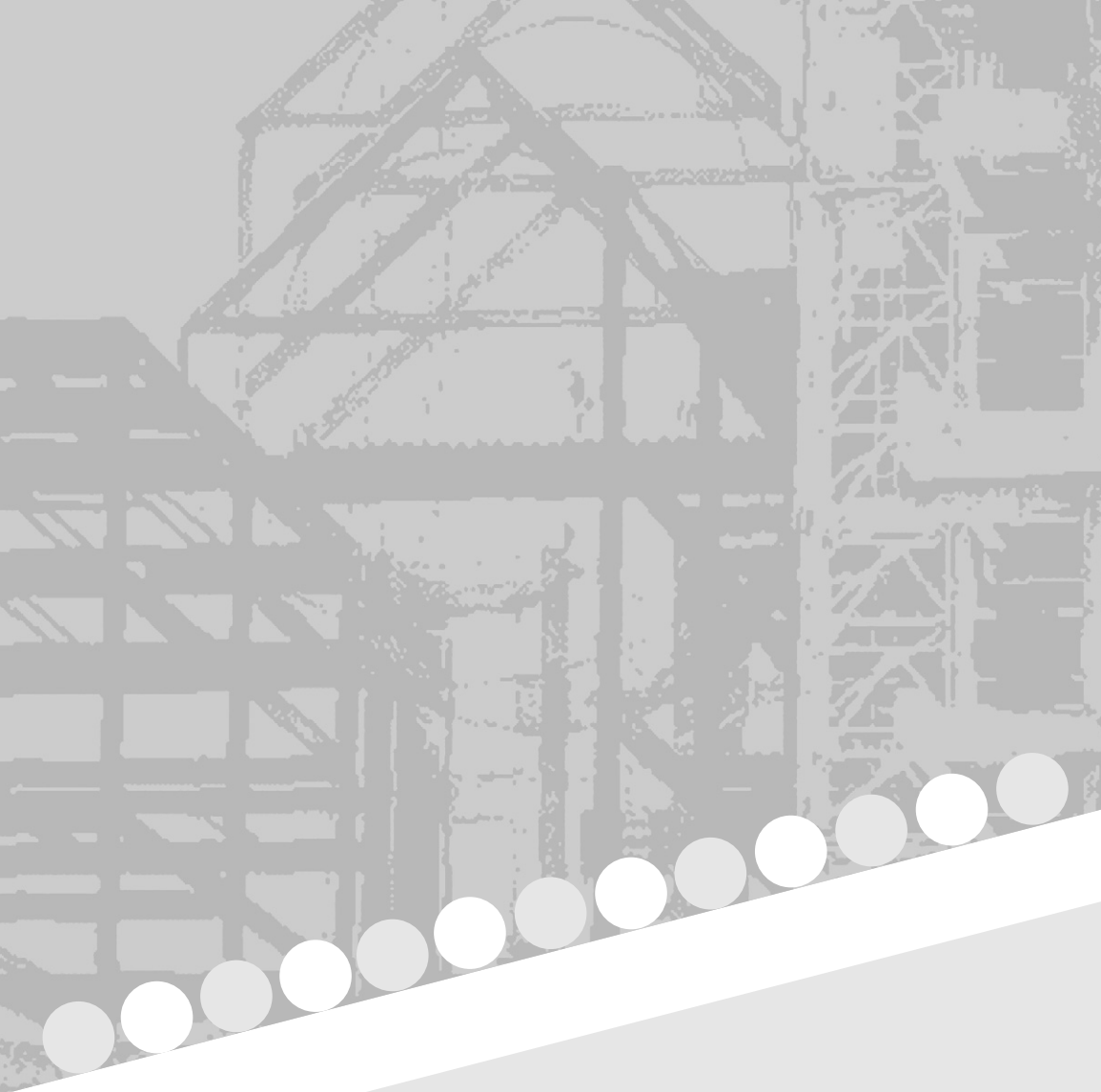
생각을 위한 질문

- 1) 우리교회가 할 수 있는 문화선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2) 복음을 문화에 담을 때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찬 송 498장 (구 275장,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토의및광고 사회자

주기도문 다함께



- 웨슬리 목사님의 3가지 삶의 규칙
-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인생활수칙

■ ■ 웨슬리 목사님의 3가지 삶의 규칙 ■ ■

웨슬리 목사님의 3가지 삶의 규칙

1. 남을 해하지 말라
2. 선을 행하라
3. 하나님과 사랑 안에 거하라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

Three Simple Rules of Rev. John Wesley

1. Do no harm
2. Do good
3. Stay in love with God

기독교대한감리회

■ ■ 교인 생활 수칙 ■ ■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

취지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감리교회의 위상을 높이고, 전도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바르고 신실한 믿음생활을 사회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 이에 사회평신도국은 감리교인의 생활규칙을 제정하고, 그 실천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감리교회의 생활 수칙을 만들어 공포하는 바이다.

목표

1. 웨슬리의 성화론적인 신학과 신앙의 원리를 규칙으로 삼아 지켜온 신앙전통을 이어받아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2. 기독교인의 삶의 표준으로 사회생활 수칙을 선포하고 지키게 함으로 감리교인의 도덕적 수준을 드높인다.
3. 하나님의 복을 불우한 이웃과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전도의 열매를 맺어 교회를 부흥시킨다.

생활수칙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경건생활에 힘쓰고,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1. 교회생활 수칙

우리는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지체의 하나로서 서로 받들고 협력하며, 직분에 따라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충성한다.

- ① 교우들을 대할 때 누구에게나 형제와 자매처럼 친절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존경과 예우를 한다.
- ② 교회 내에서 교우 간의 호칭은 직분(집사, 권사, 장로)에 따라 부르고, 직분에 벗어나지 않도록 예의를 갖추어 쓰도록 한다.
- ③ 교회의 모든 물품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종이 한 장이라도 아껴 쓰고, 교회의 각종 시설을 깨끗이 사용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 ④ 우선적으로 어려운 교우들을 돕고, 환난 당한 교우들을 최선을 다하여 돌보아 주되, 보증을 서는 일이나 금전거래는 피한다.
- ⑤ 예배나 각종 모임의 시간약속을 잘 지켜서 신실성을 보여주며, 공동체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 ⑥ 다른 교우들의 약점을 들추거나 헐뜯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자. 부정적인 말 한 마디가 한 영혼을 죽이고, 본인

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든다.

- ⑦ 교회의 모든 일은 나누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힘쓰고, 주관하는 사역보다 뒤에서 협력하고 보좌하는 습관을 갖는다.
- ⑧ 성도의 사생활이나 허물은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속회에서나 선교회에서 상담하고 일어난 일을 다른 교우들에게 말하지 않는다. 불확실한 말을 전하는 것이 사단이 틈타는 통로이다.
- ⑨ 교회의 일은 교회 밖에서 거론하지 말고, 교회의 부정적인 일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하지 않는다.
- ⑩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나의 이익을 구하거나 자리를 탐하지 말자. 상급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2. 가정생활 수칙

우리는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공동체로 여겨 가정예배에 힘쓰고 자녀들을 경건하게 양육하며 검소하고 청빈한 생활을 통해 성숙한 그리스도인 가정이 되도록 힘쓴다.

- ① 평등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가정의 대소사는 부부가 함께 상의하고, 가족회의를 열어 결정한다.
- ② 하늘양식으로 주간 마다(혹은 매일 매일) 가정예배를 드려 경건한 가정이 되게 하고, 마침기도는 부모님이 함으로 부모님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숙지시킨다.
- ③ 가족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가훈을 만들어 가족의 정체

성을 확립한다.

- ④ 가정의 규칙을 만들어 지키게 함으로 공익을 우선하고, 규칙을 잘 지키는 시민정신을 갖게 한다. (귀가시간, TV시청 시간, 식사시간 등...)
- ⑤ 매주 한 번씩 모든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함으로 가족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품위 있는 식탁 예절을 배우게 한다.
- ⑥ 모범가정 상을 제정하여 해 마다 시상함으로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생활을 드높인다.
- ⑦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 음악, 연극 등을 개발하여 기독교문화를 창달하는데 힘쓴다.
- ⑧ 자녀들의 의식주 및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하는 데는 최선을 다 하여 투자하되, 유산은 물려 주지 않는다.
- ⑨ 관혼상제를 간소화하여 허례허식을 지양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청빈한 생활습관을 갖도록 한다.
- ⑩ 술, 담배, 도박, 마약 등 사회악을 추방하는 데 앞장서고 생활 실천 계몽 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한다.

3. 일반생활 수칙

우리는 정의롭고 진실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소외된 이웃을 돕고, 그늘진 곳에 사랑의 빛을 비추며, 소금처럼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① 동회, 반사회, 부녀회, 노인회 등 지역사회를 위한 일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 ② 아파트 및 공동주택에 거주할 경우 이웃에게 소음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이웃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작은 소리로 대화한다.

- ③ 환경공해를 일으키는 물건은 되도록 적게 쓰도록 한다.
- ④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엄격히 구분하여 행동하고, 공공 건물이나 물품 및 공동화장실을 깨끗이 사용하는 시민정신을 함양한다.
- ⑤ 차량을 운전할 때 양보운전을 습관화하여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한다.
- ⑥ 이웃에게 바르고 정직한 삶을 보여 줌으로 기독교인의 품위를 고양한다.
- ⑦ 직장의 동료들에게 항상 솔선수범 하고, 허드레한 일을 내가 도맡아 하며, 책임은 내가 지고, 칭찬은 동료에게 돌리는 리더의 자질을 키운다.
- ⑧ 마을회관, 파출소, 동사무소, 노인회관 등 지역사회의 공익기관에 관심을 갖고, 방문하여 격려하고 봉사함으로 애乡심을 기른다.
- ⑨ 시간을 잘 지키고 약속을 엄수함으로 신용을 얻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 ⑩ 어른을 잘 공경하고, 어린이, 부녀자 등 약한 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장애인을 보호하고 도와준다.

4. 창조질서 보전을 위한 수칙

우리는 자연과 생명체를 사랑하고 조화로운 삶을 위해 자원을

절약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며, 환경보호에 헌신한다.

- ① 창조질서 보전운동은 자원절약을 생활화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아껴 쓰고, 덜 쓰고, 바로 쓰고, 다시 쓰고, 나눠 쓰자.

- ② 재활용은 자원절약의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일회용품을 사
용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한 중고품을 서로 교환하여 이용
한다.

- ③ 샴푸, 린스, 세제, 스프레이 등 공해물질을 덜 쓰거나 쓰지
않는다.

- ④ 오염물질이 하천에 배출되지 않도록 폐수는 반드시 정화시
설을 통하여 배출하도록 한다.

- ⑤ 비닐을 적게 쓰고 특별히 농산물 포장에 유해물질이 들어
가지 않도록 한다.

- ⑥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분량을 줄이고,
내가 남긴 쓰레기는 내가 처리하고, 버려진 휴지를 줍는 습
관을 기른다.

- ⑦ 청결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담배꽂초나 껌, 침 등을 함
부로 뱉지 않는다.

- ⑧ 공원과 공공장소의 시설물을 아껴서 사용하자. 문화생활의
척도는 공공화장실 사용에 있다.

다음에 이용하는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깨끗하게
사용한다.

- ⑨ 탐욕을 버리고 일용할 양식으로 자족한다.

- ⑩ 교회 및 NGO 시민단체에서 벌리는 환경보전을 위한 캠페

인에 적극 참여하여 활동한다.

5. 정직운동 실천을 위한 수칙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정직하게 행하여 사회에서 존경받고 칭찬 들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앞장선다.

- ① 날마다 정직한 마음을 갖도록 기도한다.
- ② 정직선언서를 만들어 서명하여 마음에 새기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소에 부착하여 날마다 보도록하게 한다.
- ③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한다.
- ④ 약속을 꼭 지킨다.
- ⑤ 정직이 최선의 삶의 모범임을 자녀들에게 가르친다.
- ⑥ 공공질서를 잘 지킨다.
- ⑦ 부정한 뇌물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
- ⑧ 검약생활에 본보기가 된다.
- ⑨ 국가에 세금을 정직하게 내고, 교회의 통계표를 정직하게 보고한다.
- ⑩ 지방이나 연회의 각 선교회 단체에서 주관하는 크고 작은 행사 때 마다 정직 캠페인을 벌려 감리교인 전체가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엄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힘쓰고, 화해와 평화가 넘치는 인류사회를 위해 봉사한다.

2009^{평신도}

월례회 공과 복음의 능력으로 전도의 사명을 다하는 평신도

발행일 / 2008년 10월

발행인 /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

발행처 /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

100-101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64-8 감리회관 16층

TEL : (02)399-4346~8 / FAX : (02)399-4350

비매품

